

# 지식묘 구조 다양성의 사회적 의미\*

김 권 구\*\*

I. 머리말
II.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과 관련된 변수
III. 주요 지식묘 사례분석
IV. 지식묘의 시기성 · 지역성과 의미 검토
V. 맺는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과 그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동기시대 시기별로 지식묘 축조과정에서 축조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을 토대로 사회 · 경제적 맥락 속에서 지식묘 구조 다양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남지역 지식묘에서의 구조적 다양성에서 집단의 내부적 · 외부적 차별화를 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상대적으로 덜 보이다가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권

---

\* 이 연구는 2022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20220683).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전자우편 ggkindream@kmu.ac.kr

에서 거대한 상석이나 묘역 혹은 다단토광에 다단개석을 가진 대규모 매장주체부, 가시성이 탁월한 입지, 불을 사용한 정화의례 등의 요소가 결합되는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후기 지역별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은 사회분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유력자의 존재가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불안정한 불평등’과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을 역동적으로 암시하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즉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은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상징물이라고 생각된다.

◆ 주제어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 내부적 · 외부적 차별화,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상징물

## I. 머리말

청동기시대에는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 석개토광묘, 목관묘, 화장묘 등 다양한 묘제가 존재한다.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중국 遼東 太子河流域에 있는 馬城子遺蹟의 사례가 보여주듯 동굴 속의 화장묘와 같이 지상에 두드러지지 않는 분묘가 축조되다가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로 가면서 지상에 보이는 지석묘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묘제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지석묘는 탁자식 지석묘, 기반식 지석묘 그리고 개석식지석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특히 지석묘는 무덤일 뿐만 아니라 의례대상물 혹은 집단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정체성도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층적 상징과 의미를 가진 청동기시대 지상기념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지석묘에 대해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석묘의 구조와 형식분류, 출토유물, 연대, 분포범위와 양상, 지석묘의 기능, 지석묘의 형식별 선후 관계, 지석묘의 기원과 전파, 실험고고학적 연구와 민족지 고고학적 연구, 묘역식 지석묘에 관한 연구<sup>1)</sup>, 지

- 
- 1) 김재원·윤무병, 『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박물관, 1967; 최몽룡, 「다. 전남지방소재 지석묘의 형식과 분류」, 『한국 지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371~406쪽;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이성주, 1999, 「마. 지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 유적 종합 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423~441쪽; 이형원,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분묘 공간 조성의 다양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47~87쪽; 배진성, 「지석묘의 기원 연구를 바라보는 일 시각-기원론에서 형성론으로-」,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33~45쪽; 김광명, 「낙동강 중·상 유역 지석묘의 특징」, 『대구·경북의 지석묘 문화』(영남문화재연구 3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51~79쪽; 윤호필,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창간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a, 1~20쪽; \_\_\_\_\_, 「청동기시대 무덤 및 매장주체부 재검토:김해 율하리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5호, 한국청동기학회, 2009b, 36~58쪽; \_\_\_\_\_,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승옥, 「묘역식(옹담식) 지석묘의 전개과

석묘 출토 인골 연구, 훼손 행위와 화장 및 불을 사용한 의례 등에 관한 연구<sup>2)</sup>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와 더불어 지식묘 피장자의 성격과 지식묘 축조사회가 공동체 지향적 평등사회인지 아니면 불평등사회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지식묘 축조사회의 사회발전단계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sup>3)</sup>. 또 지식묘 연구에 景觀考古學의 研究方法를 적용하여 지식

정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제53호, 한국상고사학회, 2006, 71~93쪽; 안재호, 「묘역식지석묘의 출현과 사회상-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생계와 묘제의 지역상」, 『호서고고학』 제26집, 호서고고학회, 2012, 38~73쪽; 이은경,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윤형규, 『대구·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소배경, 「김해 구산동유적 무문시대 집락과 기단묘-최신 발굴조사성과를 중심으로-」, 『가락국, 청동기에서 철기로』(제28회 가야사 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3, 1~22쪽; 우명하,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영남고고학』 제75호, 영남고고학회, 2016, 5~36쪽.

2)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0; 김재현,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화장묘 출토 인골분석」,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198~203쪽; 平郡達哉,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2013; 김권구,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훼손 양상에 대한 고찰」,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118~143쪽; \_\_\_\_\_,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에 대한 고찰」, 『福岡大學考古學論集 3-武末純一先生退職記念-』, 武末純一先生退職記念事業會, 2020, 193~207쪽.

3) Choi, Mong-lyong, A Study of the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The Rise of Chiefdom Society and State in Ancient Korea, Dong SeongSa, Seoul, 1984. 박양진,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 자료집),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189~204쪽; \_\_\_\_\_, 「한국 지식묘사회 “죽장사회론”의 비판적 검토」, 『호서고고학』 제14집, 호서고고학회, 2006, 5~24쪽; 이성주, 「의례, 기념물, 그리고 개인묘의 발전」, 『호서고고학』 26, 호서고고학회, 2012, 74~109쪽; 김권구,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89~138쪽; 이영문, 「제1장 분묘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분묘와 의례』, 이영문 · 윤호필 편, 서경문화사, 2017, 157~178쪽; 이수홍, 「영남지역 지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한국상고사학보』 제110호, 한국상고사학회, 2020a, 31~59쪽; \_\_\_\_\_, 「경주지역 지식묘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문화재』 제53집 NO.4,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b, 216~233쪽; \_\_\_\_\_, 「영남지역 묘역식 지식묘의 특징과 구산동 지식묘의 성격」, 『고고광

묘의 경관과 네트워크 그리고 지석묘와 교통로 혹은 마을 내 접근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sup>4)</sup>도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송국리문화단계 남강유역과 남해안지역 묘역식 지석묘의 묘역식 요소나 분구적 요소가 요동지역과 연관된 형식일 가능성을 제시한 견해<sup>5)</sup>도 발표된 바 있다. 이렇듯 다양한 각도에서 지석묘 연구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실제 지석묘의 구조가 지석묘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있음을 주목하여 基壇墓, 板石造 墓, 土棺墓 등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견해<sup>6)</sup>도 나오는 등 지석묘의 개념 정의와 연구 방향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남한지역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덤과 몸의 가분성에 관한 연구<sup>7)</sup>도 발표되며 연구 시각이 넓어지면서 지석묘의 구조적 다양성과 의례도 그러한 무덤과 몸에 대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인식에까지 연계되어 검토될 필요성도 제기<sup>8)</sup>되었

장』 제32호, 부산고고학회, 2023, 1~27쪽; 김범철,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 『한국청동기학보』 제27호, 한국청동기학회, 2020, 4~19쪽; 강봉원, 『한국 지석묘 연구-정치·사회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학연문화사, 2022; 이동희, 『한국 지석묘문화와 복합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23.

- 4) 강동석, 「보성강·탐진강 유역 지석묘사회의 변동 양상-지석묘의 분포, 구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29호, 한국청동기학회, 2021, 130~163쪽; \_\_\_\_\_,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관-진주 대평리·평거동·초장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32호, 한국청동기학회, 2023, 34~66쪽; 이성주, 「기억, 경관, 그리고 기념물 축조」, 『문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9, 55~74쪽; 김준영, 「지석묘 분포를 통해 본 남해안 각 지역의 교통로」,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174~195쪽; 이수홍,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분묘군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 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2024, 50쪽.
- 5) 유병록, 「한국 청동기시대 분구묘의 설정과 의미」, 『한국청동기학보』 34호, 한국청동기학회, 2024, 17~19쪽.
- 6) 최종규, 「1. 용잠리의 파괴된 무덤을 이해하기 위한 추상」, 『창원 용잠리 송국리문화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12, 307~344쪽.
- 7) 우정연, 「남한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의 가분성(dividuality)」, 『한국학』 17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7~45쪽.
- 8) 김종일,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분묘군의 고고학』 (영

고 지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sup>9)</sup>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시각에서 조금 탈피하여 지식묘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과 연계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sup>10)</sup> 과거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 중층적 상징과 의미를 가진 지상 기념물인 지식묘의 축조 의도가 담겼다고 할 수 있는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과거 고고학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설사 지식묘의 구조적 특징과 축조된 지식묘와 그 입지를 의례 무대로 삼아 집단을 내부적·외부적으로 차별화하며 집단이 당면한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며 집단 정체성을 만들고 외부에 집단의 배타적 영역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 중심적 상징물로 동태적으로 활용하였던 지식묘 관련 의례와 부장품 등의 부차적 요소들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 II.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과 관련된 변수

### 1. 지식묘 축조집단의 사용 가능한 수단

지식묘에 대한 형식분류는 지식과 상석 그리고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근거하여 지식묘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강조

---

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2024, 29쪽.

9) 이동희, 「제단식 지식묘로 본 김해 구산동 지식묘」, 『호남고고학보』 제72집, 호남고고학회, 2022, 228~267쪽; 이성주, 「지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 『대구·경북의 지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3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127~162쪽.

10) 필자는 지식묘(고인돌)라는 명칭이 지식의 존재에 너무 집착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다양한 구조를 가진 지식묘를 포함한 돌무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식묘로 사용되어 학계에 이미 정착된 용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지식묘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며 분류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지석묘의 구조적 특성과 그를 활용한 부차적 요소도 검토될 것이다. 즉 지석묘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검토요소로서 상석 강조방식(a), 봉토 강조방식(b), 묘역 규모 강조방식(c), 다단토광 및 다중개석의 사용을 통한 매장주체부 규모의 강조방식(d)뿐만 아니라 부차적 차별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의 강조방식(e), 부장유물 의기화 강조방식(f), 제의 기념물과의 거리 강조방식(g), 주변 가시성 및 조망성 강조방식(h), 매장주체부를 목관으로 차별화하는 방식(i), 불을 통한 정화의례로 차별화하는 방식(j), 단독분포방식(k), 군집분포방식(l) 등도 검토될 것이다.

지석묘 상석의 규모, 봉토의 축조, 묘역의 규모,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지석묘의 구조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여서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부장 유물의 종류와 수량, 부장 유물의 의기화, 제의 기념물과의 거리 강조방식, 주변 가시성 및 조망성 강조방식, 매장주체부를 목관으로 차별화하는 방식, 불을 통한 정화의례로의 차별화 방식, 단독분포방식, 군집분포방식은 부차적인 요소이지만 주어진 지석묘의 구조 속에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여서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관점과 연구 방법

지석묘 연구에 있어서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형식분류와 전파론적 관점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을 시기성과 지역성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기존 지석묘 연구의 틀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석묘 축조자를 문화변동의 作因으로 보고 그들이 지석묘 축조에 필요한 석재 조달 등의 제약 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물이 지석묘의 구조적 다양성임으로 그를 최대한 활용한 의례적 특성과 부장품의 양상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연구관점을 이 논문은 가지고 있다.<sup>11)</sup> 의례적 특성의 고려를 통해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이 갖는 의미도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상석과 묘역 그리고 매장주체부를 포함한 지식묘의 하부구조와 같은 지식묘의 구조적 특성과 그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이어지는 의례와 부장행위의 양상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과 그 사회적 의미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묘는 입지와 장소 그리고 축조과정과 축조물도 중요하지만 축조할 때부터 의례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부가되고 재해석되며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지식묘 구조가 동태적으로 활용되는 것임으로 지식묘의 구조적 다양성도 믿음, 종교,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식묘의 구조와 관련된 직접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의례적 요소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소를 가지고 영남지역 내 지식묘 구조의 지역성과 시기성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묘의 상석 규모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봉토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묘역 규모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다단토광 및 다중개석의 사용을 통한 매장주체부 규모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으로 차별화하는 권역, 부장품의 의기화를 통한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제의 기념물과의 거리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권역, 가시성과 조망성을 강조하는 권역, 목관을 채택하는 권역, 불을 통한 정화의례로 차별화하는 권역, 단독 분포와 군집 분포 등 분포방식의 차별화 권역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식묘 상석은 지식묘의 구조에서 규모의 차별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묘군 내에서의 지식묘 상석의 규모는 지식묘 축조집단 내에서의 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식묘 축조집단들 사이에서의 집단 간 차별화와 집단영향력의 과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하다. 묘역 규모의 차별화도 상석만큼 중

---

11) 이 논문은 그러한 점에서 지식묘 축조집단이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인 자신들의 사회적 전략에 토대를 두고 끊임없이 동태적 의미 해석을 통하여 지식묘 문화를 만들고 변형시켜나갔던 주체라는 관점에서 作主理論의 틀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한 지석묘의 상징성과 집단영향력의 과시 수단이 되며 새롭게 채용되는 봉토도 지석묘의 규모를 과시하고 다른 지석묘와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석묘의 입지와 분포 방식(단독분포와 군집분포 등)은 유력자와의 연계성, 그리고 가시성과 조망성, 경관과의 연계성 속에서 지석묘의 구조적 다양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 혹은 부장품의 의기화를 통한 차별화와 제의기념물과의 접근성을 통한 차별화, 목관의 수용과 다단토광 및 다중개석의 사용을 통한 규모가 큰 지석묘 하부구조의 축조, 불을 통한 정화의례 등도 기존의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 속에서 그 상징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 III. 주요 지석묘 사례분석

이 장에서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검토 대상 유적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을 영남지역으로 공간적 대상을 설정한 것은 소백산맥, 남해안, 동해안과 같이 지리적, 자연적 장애물로 공간이 상대적으로 잘 구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형과 바다 등 자연적 요소에 의해 구획된 공간 속에서의 지역성 분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서의 지역성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1. 검토 대상 주요 유적과 시기 구분

이 논문에서는 세부적인 시기 구분을 청동기시대 전기, 후기(송국리단계, 검단리단계), 초기철기시대로 나누었으며 편의상 선정한 주요 검토 대상 지석묘는 <표1>와 같다.

<표1> 시기별 검토 대상 주요 지석묘

시기	시기별 검토대상 주요 지석묘
청동기시대 전기	합천 저포E지구 8호 지석묘, 칠곡 심천리 석관묘,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단계, 검단리단계)	대구 상동 지석묘, 대구 신서동 지석묘, 대구 상인동 지석묘, 대구 진천동 입석과 석관묘, 달성 설화리 556-2번지 지석묘, 경산 하대리·전지리 지석묘, 경산 대학리 지석묘, 경주 도계리 지석묘,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지석묘, 경주 상신리 지석묘, 경주 갑산리 적석석관묘, 창녕 유리 지석묘, 창원 덕천리 지석묘, 창원 진동 지석묘, 창원 봉산리 지석묘, 창원 화양리 1호 지석묘, 사천 이금동 지석묘, 사천 덕곡리 지석묘, 진주 초장동 5호 지석묘, 진주 가호동 지석묘, 진주 이곡동 지석묘, 진주 호탄동 지석묘, 김해 신문리 석관묘, 김해 율하리 지석묘
초기철기시대	경주 전촌리 석렬 및 제단유구, 김해 구산동 지석묘

## 2. 영남지역 주요 지석묘의 검토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영남지역 지석묘 중에서 발굴이 이루어진 대표적 지석묘를 주로 선택하여 지석묘의 구조적 특성과 차별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합천 저포E지구 8호 지석묘

합천 저포E지구유적에서는 8개의 지석묘가 확인되었고 대체로 묘역식 지석묘로 판단되며 이들 지석묘는 축적지에 동서 2열로 배치되어 있었다. 8호 지석묘는 묘역식 지석묘이면서 군집을 이루는 지석묘군<sup>12)</sup>에 속하는 군집분포방식(I)에 속한다. 크게 보아 상석강조방식(a), 묘역강조방식(c)에 속한다. 8호 지석묘에서는 이단병식마제석검, 무경식석촉, 유경식석촉 등이 출토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유물이 부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e).

12) 부산대학교박물관, 『합천 저포리E지구유적』, 1987:249~251쪽.

## 2) 칠곡 심천리 석관묘

칠곡 심천리 석관묘는 구릉 최하단부에 입지하는 단독묘(k)로서 이단 병식석검과 무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sup>13)</sup> 이 석관묘는 출토유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한다.

## 3)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포항 인비리 지석묘군은 구릉 하단부에 입지하며 지석묘 다수가 무리를 이루는 군집분포방식(l)을 띤다.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상석에는 이단병식석검과 무경식석촉 문양의 암각화가 존재한다.<sup>14)</sup> 포항 인비리 지석묘군에서는 상석의 규모가 다양하여 상석강조방식(a)으로 차별화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포항 인비리 지석묘는 구릉 하단부에 입지하지만 군집을 이루며 가시성과 조망성 강조방식(h)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 4) 대구 상동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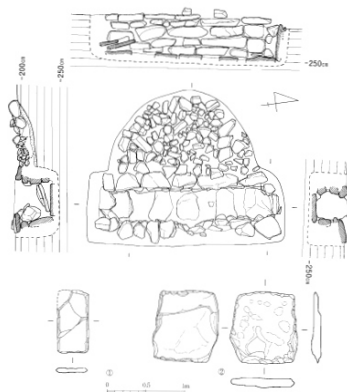
대구 상동 지석묘는 자연제방 위에 지석묘 매장주체부 41개가 군집분포방식(l)으로 밀집분포하고 있다. 상동 지석묘 10호에서는 일단경식석촉이, 상동지석묘 11호에서는 일단병식 마제석검이 출토되어<sup>15)</sup>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지석묘로 판단된다.

대구 상동 지석묘도 불을 사용한 정화의례 등 의례를 행한 흔적이 상동 1호 지석묘에서 보여<도면1> 불을 사용한 의례(j)의 사용과 매장주체부의 규모와 축조방식에서의 다양성과 부장품의 존재 등에서의 다양성(e)도 존재한다.

1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목곽묘 외(본문)-』, 2004, 33~35쪽.

14) 국립경주박물관, 「월성군·영일군 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1985, 124~128쪽.

15)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상동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



〈도면1〉 대구 상동 1호지석묘<sup>16)</sup>

## 5) 대구 신서동 지석묘

대구 신서동 지석묘는 낮은 구릉성 평지의 좁은 구역에 입지한다. 상석만 확인된 지석묘 4기, 상석과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지석묘 4기, 매장주체부만 확인된 석관묘 44기 등 총 52기가 확인되었다.<sup>17)</sup> 대구 신서동 지석묘는 상석의 규모와 유무 등 상석을 통한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식(a)과 군집분포양상(l)을 보이는 청동기시대 후기 무덤이다.

## 6) 대구 상인동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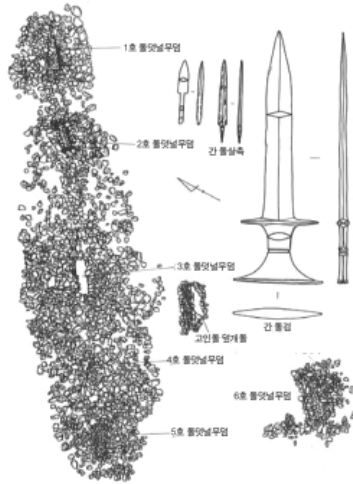
대구 상인동지석묘는 하나의 묘역 속에 줄이어 매장주체부 5개가 축조된 지석묘로서<sup>18)</sup> 묘역규모 강조방식(c)을 하고 있고 그 중 하나의 매장주체부에서는 의기화된 마제석검이 부장되는 것을 고려할 때〈도면2〉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의 강조방식(e)과 부장유물 의기화 강조방식(f)

16)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15쪽

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 I』, 2012, 53~54쪽.

18)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청동기시대편①-증보판(국내편)』, 2022, 733쪽.

을 띤 지석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장 양상은 내적 차별화와 외적 차별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암시한다. 또 주변에서 보이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선상지 중앙부 정도에 입지하여 가시성도 강조되는 방식(h)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면2〉 대구 상인동 지석묘와 출토유물19)

## 7) 대구 진천동 입석과 석관묘

대구 진천동 입석은 대구 월배선상지의 선단부에 입지한다. 그리고 장방형의 석축기단 위에 입석이 있고 입석 주변에 석관묘 5기가 분포<sup>20)</sup>하는 양상이다. 의례기념물인 입석과 제단 인근에 석관묘가 군집해 분포된 유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대구 진천동 입석 유적과 석관묘군은 신전 혹은 의례센터 추정 시설 강조방식(g), 군집분포방식(l)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 국립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22), 733쪽.

20) 경북대학교박물관, 『진천동 · 월성동 선사유적』, 2000, 17쪽, 40~41쪽.

## 8) 달성 설화리 지석묘

이 지석묘는 달성 설화리 556-2번지의 구릉에 위치한다. 이 지석묘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석묘 2기와 13기의 석관묘가 발굴되었으며 청동기시대 1호 지석묘에서는 석창 1점, 석촉 1점, 미완성석기 3점이 출토되고 2호 지석묘에서는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고 청동기시대 10호 석관묘에서는 석창 1점, 석촉 4점이 출토되어서<sup>21)</sup>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석묘군으로 판단된다.

대구 설화리 지석묘는 다수의 지석묘가 군집하여 분포하는 군집분포방식(l)이며 구릉에 입지하며 주변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성과 조망성 강조방식(h)의 지석묘라고 할 수 있다.

## 9) 경산 하대리·전지리 지석묘

낮은 구릉에 입지하는 경산 하대리와 전지리 지석묘군에서는 석관묘 31기와 석곽묘 2기가 조사되고 무문토기 편, 붉은간토기, 일단병식석검, 석촉, 대롱옥 등이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축조방식에서도 판석을 가로놓혀쌓거나 세로놓혀쌓기로 쌓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무덤의 배치도 단독형, 열상형, 나선형 등으로 2~4기씩 군집을 이루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sup>22)</sup>

경산 하대리와 전지리 지석묘군은 기반식 지석묘와 개석식 지석묘로 상석이나 개석이 있어서 상석강조방식(a), 지석묘군의 군집분포방식(l)을 띄고 있다.

## 10) 경산 대학리 지석묘

경산 대학리 지석묘는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0-1번지의 구릉 말단부

---

21) 세종문화재연구원, 「대구 화원 설화리(556-2번지 일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공원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9~55쪽.

22) 대경문화재연구원, 「경산 하대~옥천간 도로(대로1-남산1)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의 평탄지에 입지하며 묘역식지석묘 일부와 석관묘 6기가 조사되었다<sup>23)</sup>.

석관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평면 장방형 묘역을 가진 묘역식 지석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묘역규모 강조방식(c), 묘역식 지석묘에서 인접해 있는 석관 출토유물 중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모습에서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의 강조방식(e), 지석묘와 석관묘가 군집되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군집분포방식(l)의 특성을 보인다.

## 11) 경주 상신리 지석묘

경주 상신리 지석묘는 경주 상신리 876번지 일원의 충적대지에 입지한다. 이곳에서는 묘역식 지석묘 4기가 조사되었다. 군집하여 지석묘가 분포한다는 점에서 군집분포형(l)에 속한다. 묘역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 그리고 원형이 확인되었다.<sup>24)</sup> 경주 상신리 지석묘는 규모가 큰 장방형 묘역의 존재로 볼 때 묘역규모 강조방식(c)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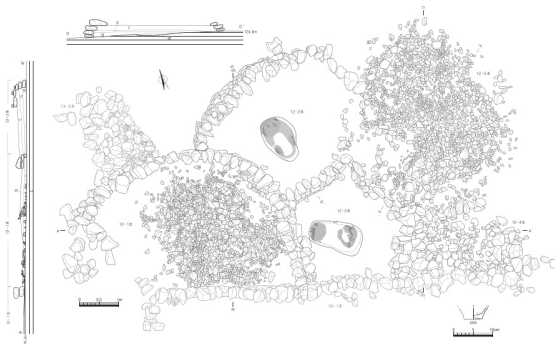
## 12) 경주 도계리 지석묘

완만한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 6기, 상석 5기, 묘역식 지석묘 49기,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sup>25)</sup> 묘역식 지석묘는 평면 장방형 및 원형의 묘역식 지석묘 연접하여 확인되고<도면3>, 경주 도계리 지석묘 유적은 상석도 대형인 것이 5기 확인되어 상석강조방식(a), 묘역규모 강조방식(c), 주변 가시성 및 조망성 강조방식(h), 화장 혹은 불을 통한 정화 의례로 차별화하는 방식(j)<sup>26)</sup>, 군집분포방식(l)의 특징을 띠고 있다.

23) 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산 대학리 · 교리 유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본문 · 도면-』, 2019, 41쪽.

24) 덕온문화재연구원, 「경주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부분완료 (2차) 약식보고서」, 2023, 29~39쪽.

25) 삼한문화재연구원, 『영천 반정리 부흥 · 영천 팔암 ·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 II 외 16개 소 유적 I (본문)』, 2020, 432~447쪽, 459~509쪽.



〈도면3〉 경주 도계리 묘역지석묘 12호의 연접양상<sup>27)</sup>

### 13) 경주 석장동 지석묘

경주 석장리 지석묘 유적은 주변에 다수의 지석묘 상석이 존재하여 군집된 양상을 보이며 발굴된 묘역식 지석묘의 묘역 내에서 석관묘와 3개체분의 인골이 화장된 흔적<sup>28)</sup>과 석관도 확인되었다. 석관묘에서는 일단병식마제석검과 석착이 출토되었다.

경주 석장동 묘역식 지석묘는 다른 지석묘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군집분포방식(l)이며 묘역이 크다는 점에서 묘역강조방식(c)을 띤다.

26)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의 묘역지석묘 1호 내 매장시설 1-2호, 묘역지석묘 2호, 묘역지석묘 5호의 5-1호 매장시설과 5-4호 매장시설, 묘역지석묘 7호, 묘역지석묘 10호의 10-1호 매장시설과 10-2호 매장시설, 묘역지석묘 12호의 12-2호 매장시설과 12-3호 매장시설, 묘역지석묘 13호의 매장시설 13-4호와 13-7호에서 다량의 소토알갱이, 목탄 혹은 피열흔이 확인되어(삼한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20) 화장 혹은 불과 관련된 의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27) 삼한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20), 493쪽.

28)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 조사 보고서 II』, 2012, 190~191쪽; 김재현,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화장묘 출토 인골분석」,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II』,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198~203쪽.

#### 14) 경주 갑산리 적석석관묘

경주 갑산리 적석석관묘는 야산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하며 2단 토광의 매장주체부이며 할석으로 묘광 바닥 전체를 깔고 판석으로 석관을 만들고 그 위에 개석을 덮고 있는 매장주체부 강조방식(d), 단독분포방식(k), 가시성과 조망성 강조방식(h)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주 갑산리 적석석관묘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영양 신원리 유적, 창원 덕천리 유적, 보성 동촌리 유적의 구조상 유사하여 지석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발굴자는 보고 있다.<sup>29)</sup>

#### 15) 창녕 유리 지석묘

창녕 유리 지석묘는 지석묘 상석강조형(a), 주위를 내려다보면서도 주변 지역에서 지석묘가 보일 수 있는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여 가시성과 조망성 강조방식(h)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창녕 유리 지석묘는 매장주체부의 구조 관련 유구 2기의 발굴과 입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10기 이상의 지석묘가 모여있는<sup>30)</sup> 군집분포양상(l)의 특성을 보인다.

#### 16) 창원 덕천리 지석묘

창원 덕천리 지석묘는 낮은 구릉에 입지하는 묘역 내 위치하는 1호 지석묘와 석축 묘역 주변에 분포하는 22기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무덤 유적이다.

1호 지석묘는 석축 묘역 내에 위치하면서 3단 토광의 3차 개석으로 축조되어 있고 그에 봉토가 조성되어 있고 3개의 지석도 확인되었으며 그 위에 상석이 놓인 형태여서 상석강조방식(a), 봉토 강조방식(b), 큰

---

2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주 갑산리 유적』, 2006, 123쪽, 171~172쪽 ; 이성주 · 신영애 · 방선지 · 조미애 · 정은정 · 김광명,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231쪽.

30) 김재원 외, 앞의 책, 173~178쪽

묘역을 가진 묘역 규모 강조방식(c), 3단 토광과 3단 개석 그리고 적석을 가져 매장주체부 규모 강조방식(d)이 확인된다.

1호 지식묘에서는 세장한 유경식 석축이 22점, 관옥이 6점 출토되고 2호 지식묘에서는 관옥 165점이 출토되었으며 16호 지식묘에서는 비파형동검, 이단병식석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어 부장 유물의 종류와 수량의 강조방식(e)이 확인된다. 또 가시성과 조망성 강조방식(h)과 군집분포방식(l)의 특성도 창원 덕천리 지식묘에서는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4호 지식묘 상석 아래 할석주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고 7호와 11호 지식묘의 경우에는 목관의 사용도 추정<sup>31)</sup>되어 목관사용으로 차별화하는 방식(i)의 특성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 17) 창원 진동 지식묘

창원 진동 지식묘 유적은 층적대지에 평면 장방형과 원형의 묘역식 지식묘가 군집분포방식(l)으로 분포하며 봉토강조방식(b)과 묘역강조방식(c)이 확인된 지식묘 유적이다.

창원 진동 지식묘에서는 붉은간토기, 일단병식석검, 유경식석축, 관옥 등이 묘별로 없거나 다른 구성 내용으로 출토되어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이며(e) 묘역식 지식묘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창원 진동 지식묘 중에서 A-1호 묘는 원형의 묘역 석축과 環溝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토한 봉토로 기반을 축조하여<sup>32)</sup>(b) 마치 구획석에 둘러싸인 매장주체부가 있는 지상식 무덤의 가시성도 있다.

## 18) 창원 봉산리 지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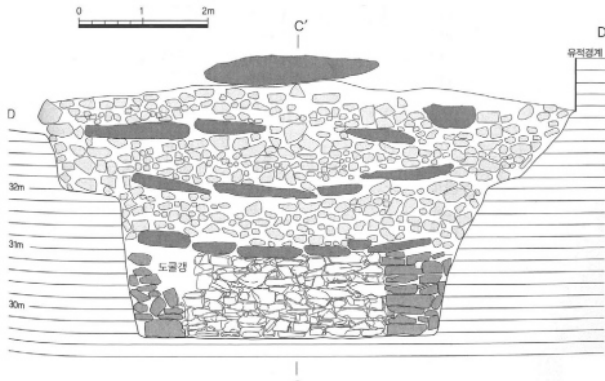
창원 봉산리 지식묘는 주변을 내려다보기 좋은 구릉 정상부에 입지하

31) 경남대학교박물관, 『덕천리』, 2013, 111~120쪽.

3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마산 진동 유적 I』, 2008 ; \_\_\_\_\_, 『마산 진동 유적 II』, 2011.

며 붉은간토기, 유경식석촉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에 속하는 것으로 편년된다.<sup>33)</sup>

창원 봉산리 지석묘는 상석강조방식(a), 완만한 봉토강조방식(b) 묘역강조방식(c), 다단토광과 다중개석을 한 구조를 한 매장주체부 강조방식(d)<도면4>, 주변 지역을 내려다보며 주변 지역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h)과 군집분포방식(i)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면4> 창원 봉산리 2호 지석묘 하부구조<sup>34)</sup>

## 19) 창원 화양리 1호 지석묘

창원 화양동 1호 지석묘는 구릉 말단부에 입지하는 묘역식 지석묘로서 묘역의 형태는 평면 타원형이고 2단 굴광을 하고 2단 적석을 한 후 상석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창원 화양동 1호 지석묘는 길이 330cm, 너비 230cm, 높이 100cm의 상석을 가지고 있어 조망성과 가시성 강조방식(h), 묘역강조방식(c), 다

33) 국립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6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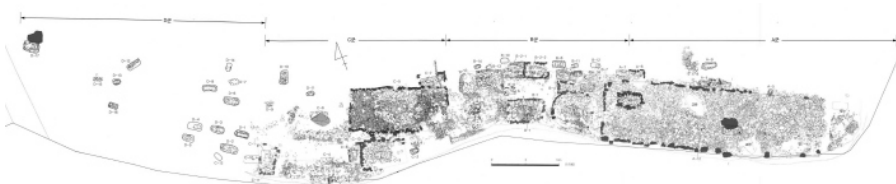
34) 삼강문화재연구원, 『남해 당항리유적』, 2021, 101쪽

3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화양리 1호 지석묘』, 2021, 32~40쪽.

단굴광을 한 매장주체부 규모 강조방식(d)특성이 있다. 현재 창원 화양리 1호 지석묘는 단독분포방식(k)을 띠고 있으나 주변 지역에 대한 확대 발굴시 지석묘 관련 유구가 더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 사천 이금동 지석묘

사천 이금동 지석묘는 넓은 해안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구릉에 입지하여 조망성과 가시성이 좋다(h). 상석도 규모가 다양한 상석강조방식(a), 묘역의 평면형태가 장방형, 방형, 원형으로 다양한 묘역강조방식(c), 묘역식 지석묘들이 연결하면서 군집 분포하는 방식(l)이 확인된다<도면 5>.



<도면5> 사천 이금동 지석묘<sup>36)</sup>

사천 이금동 B-3-1호 묘, D-17호 묘, D-12호 묘, 사천 이금동 A-9호 송국리형석관묘는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에 목관을 사용하여(i)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금동 지석묘군 내에서 적색마연소호와 유경식석축, 유구석부가 출토된 C-5호 묘역식 지석묘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C-10호 묘와 D-4호 묘에서 비파형동검편도 출토되어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 강조방식(e)이 확인된다.

사천 이금동 지석묘는 묘역과 주거역 사이의 공간에 입지하는 61호 건물지<sup>37)</sup>와 같은 의례센터로 추정되는 기념물<sup>38)</sup>과 가까운 거리를 강조

36)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천 이금동 유적』, 2003, 36쪽.

37) 조현정, 「2. 이금동 유적의 지상식건물에 관해서」,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 고고학연구소, 2003, 335~345쪽.

하는 방식(g)도 가지고 있다.

## 21) 진주 초장동 5호 지석묘

진주 초장동 지석묘는 평지에 입지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석묘로 모두 22기의 청동기시대 무덤이 확인되었고 평면 원형과 평면 장방형의 묘역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sup>39)</sup> 초장동 지석묘는 봉토강조방식(b)<sup>40)</sup>, 묘역규모 강조방식(c), 주변 가시성 강조방식(h), 군집분포방식(l), 매장주체부의 목관묘 차별화방식(i) 등의 특성을 띠고 있다. 특히 진주 초장동 5호묘는 목관묘는 초장동 15호 묘와 19호 묘<sup>41)</sup>와 더불어 목관묘를 통한 매장주체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i)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2) 김해 신문리 석관묘

김해 신문리 유적에서는 3기의 청동기시대 후기 무덤이 조사되었다. 묘 1호는 구릉 정상부 인근에서 확인되었고 적색마연호가 출토되었다. 묘 2호도 구릉 정상부 인근에서 확인되었고 2단 토광에 3단 개석을 한 석개토광묘였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묘 3호는 구릉정상부 동쪽에 입지하며 묘 1호와 묘 2호보다 2.6m 낮은 해발고도 28.6m의 선상에서 조사되었는데 4단 굴광에 5차 개석을 한 석관묘였고 적색마연호, 유경

38) 사천 이금동 지석묘군에서는 인근에서 길이 32m, 너비 12m에 달하는 정면 19칸 측면 2칸의 60여 개 주혈이 3열로 정연하게 배치된 대형건물지(61호 건물지)가 조사되어 일본 오사카의 야요이시대 이케가미·소네유적(池上・曾根遺蹟)에서 조사된 의례센터나 신전과 같은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39) 동서문물연구원, 『진주 초장동유적Ⅲ』, 2017, 1~119쪽.

40) 진주 가호동 유적의 경우에도 장방형 묘역식 지석묘(1호)와 원형 묘역식 지석묘(2호, 3호)가 확인되었고 2호와 3호묘는 봉토가 있는 무덤이다. 모두 39기의 매장 유구가 군집 양상을 보이는 유적이다(동서문물연구원, 『진주 가호동 유적(하)』, 2011, 1~161쪽). 사천 덕곡리 유적 지석묘도 원형묘역과 장방형 묘역을 가진 지석묘와 매장주체부가 다수 군집되어 확인된 바 있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사천 덕곡리 유적』, 2010). 이와 더불어 진주 이곡리 유적(31호 지석묘)과 진주 호탄동 유적에서도 성토된 봉토가 확인된다.

41) 동서문물연구원, 앞의 책, 2017, 47~50쪽, 97~99쪽, 110~112쪽.

식석촉, 동검이 출토되었다. 동검은 5차 개석에서 출토되었다.<sup>42)</sup>

김해 신문리 석관묘는 구릉 정상부와 그 인근에 복수로 분포(l)해서 가시성과 조망성이 크다(h). 3호 묘는 석관묘이고 다른 묘는 토광묘인 점과 3호 묘에서만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점은 유물부장을 통한 차별화의 진행양상(e)을 보여준다.

### 23) 김해 율하리 지석묘

김해 율하리 지석묘는 상석을 강조하며(a) 묘역의 규모를 강조하고(c) 매장주체부 규모를 강조하면서(d) 한국식동검도 부장되어 유물부장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특성(e)을 가진 유적이다. 또 율하리 지석묘는 군집 분포방식(l)의 가시성과 조망성도 확보되는(h) 유적이다.

김해 율하리 유적에서는 A2-19호 묘를 비롯한 A1-11호 묘, A2-2호 묘, A2-7호 묘 등 지석묘에서 평면 원형과 장방형의 연접된 묘역강조방식(c)과 다중개석을 한 다단토광의 매장주체부 강조방식(d), 그리고 목관 사용 사례(i)도 다수 확인되었다.<sup>43)</sup>

### 24) 경주 전촌리 석렬 및 제단유구

경주 전촌리 석렬 및 제단유구는 저지성 대지에 입지하며 모두 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경주 전촌리 2-1호 석렬유구는 현존 길이 32m, 너비 9m, 잔존 높이 1m 가량이다. 청동기시대의 구획묘와 유사하나 매장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상석이 없는 점, 파쇄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는 점, 화장묘의 존재로 보아 제단유구로 발굴자는 판단하고 있다.

석렬에서 조사되거나 지표 수습된 유물로 두형토기 대각, 삼각형점토 대토기편이 있어서<sup>44)</sup> 초기철기시대 유구로 보인다. 이 유적은 석렬과 제단유구의 제단공간 강조방식(c), 주변 가시성 강조방식(h), 군집분포방

42) 한겨레문화재연구원, 『김해 신문리 유적-본문-』, 2015, 31~39쪽.

4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김해 율하리유적 II-본문·도면-』, 2009.

4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주 전촌리 유적』, 2015, 43~45쪽, 59~65쪽.

식(l) 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25) 김해 구산동 지석묘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구릉 말단부 혹은 평지에 단독으로 입지하는 상석의 규모가 길이 10m, 너비 4.5m, 무게가 약 350톤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지석묘이다<sup>45)</sup>.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묘역은 남북방향으로 현존 길이 85m, 너비 19m의 세장방형의 기단석렬과 그 사이에 부석을 깬 모습이다<sup>46)</sup>.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하부 매장주체부가 목관이고 홀구연 옹 1점과 대부완 1점이 출토되어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판단된다.<sup>47)</sup>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지석묘 전통의 상석과 대규모의 묘역을 가진 지석묘라는 점에서 상석강조방식(a), 묘역강조방식(c) 그리고 대규모 상석과 묘역이 결합된 단독분포방식(k)의 특성이 보인다. 또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목관으로<sup>48)</sup> 차별화하는 방식(i)으로 보인다.<sup>49)</sup>

---

45) 삼강문화재연구원, 『김해 구산동 지석묘』, 2023, 110쪽.

46) 소배경, 앞의 논문, 6~8쪽.

47) 소배경, 앞의 논문, 17쪽.

48) 일부 연구자는 지석묘 상석과 목관묘의 동시기성에 의문을 품고 있기는 하다.

49) 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매장주체부를 목관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목관의 방향도 묘역의 장축 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수직인 점에서 묘역의 장축 방향과 수직으로 석관이 배치된 포항 조사리 유적의 일단병식마제석검, 석촉, 석부 등이 묘역에서 수습된 묘역식 지석묘와 대비된다(삼강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6 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1, 2공구)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25쪽, 46쪽, 61쪽). 포항 조사리 묘역지석묘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야산 정상부 평탄면에 입지한다는 점에서 바다에서의 가시성(h)도 주목된다.

IV. 지식묘의 시기성 · 지역성과 의미 검토

1. 지식묘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다양성

III장에서 언급한 지식묘 구조나 부장품, 입지나 의례상의 특성, 신전이나 입석과 같은 기념물의 존재 여부 등을 토대로 검토대상 주요 지식묘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표2> 영남지역 주요 지식묘와 석관묘의 특성 분류<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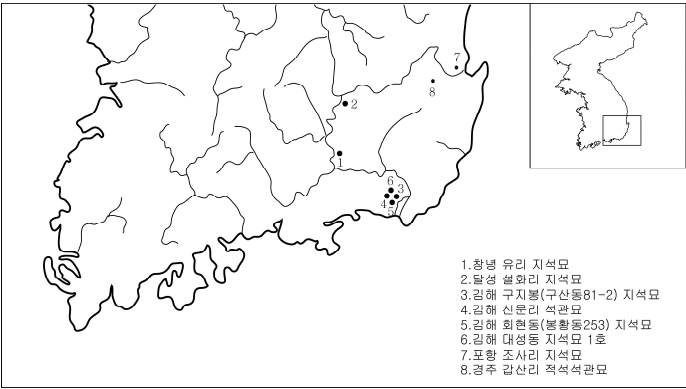
차별화 수단 유적	상석 (a)	봉토 (b)	묘역 (c)	다단 토광 (d)	유물 부장 (e)	청동기 부장 (e)	유물 의기 화 (f)	기념물 (g)	가시성 (h)	목관 (i)	불사용 (j)	단독 분포 (k)	군집 분포 (l)	시기
거제 아주동			●		●	●							●	후기
남해 당항리	●		●		●	●							●	후기
김해 신문리				●	●	●			●				●	후기
김해 구산동	●		●							●		●		초기 철기
김해 울하리	●		●	●	●	●			●	●			●	후기
김해 무계리					●		●							후기
부산 괴정동							●							후기
창원 덕천리	●	●	●	●	●	●				●			●	후기- 초기 철기

50) <표1>에 포함되지 않은 지식묘 유적도 <표2>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지석묘 구조 다양성의 사회적 의미(김권구)

창원 봉산리	●		●	●	●				●				●	후기
창원 진동		●	●		●								●	후기
창원 화양리			●	●					●			●		후기
진주 초장동		●	●						●	●			●	후기
진주 이곡동		●	●		●								●	후기
진주 호탄동		●	●		●								●	후기
진주 가호동		●	●		●	●							●	후기
사천 이급동	●		●		●	●		●	●	●			●	후기
사천 덕곡리	●	●	●										●	후기
산청 매촌리			●		●	●		●					●	후기
밀양 살내			●										●	후기
합천 저포리	●		●		●								●	전기
창녕 유리	●								●				●	후기
김천 송죽리	●		●		●	●							●	전기
대구 상인동			●		●		●		●				●	후기
대구 진천동 입석·석관묘					●			●					●	후기
대구 상동	●				●						●		●	후기
대구 신서동	●				●								●	후기
달성 천내리	●				●								●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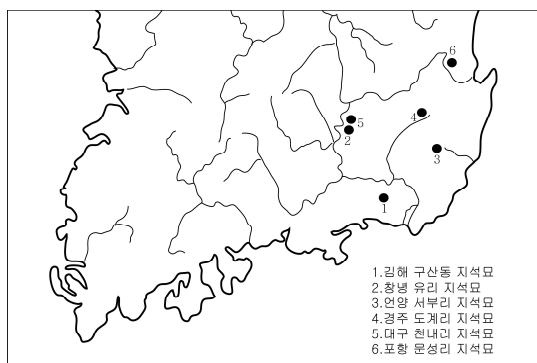
달성 설화리	●				●				●				●	후기
칠곡 심천리					●				●			●		전기
칠곡 복성리	●		●		●								●	후기
경산 하대리· 전지리	●				●								●	후기
청도 진라리	●				●			●					●	후기
경주 도계리	●		●						●				●	후기
경주 석장동			●								●		●	후기
경주 전촌리			●								●		●	초기 철기
경주 갑산리				●					●			●		초기 철기
포항 인비리	●												●	전기
포항 조사리			●						●				●	후기



<지도1> 입지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구릉 정상부나 야산의 정상부에 입지하여 가시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대전 비래동 지석묘군, 고창 도산리 탁자식 지석묘, 김해 봉산리 지석묘군, 김해 신문리 석관묘, 대구 화원 설화리(556-2번지 일원) 지석묘와 석관묘군,<sup>51)</sup> 김해 대성동고분군이 입지하는 구릉에서 조사된 지석묘 1호,<sup>52)</sup> 김해 구지봉 정상부에 입지하는 추정 지석묘, 창녕 유리 지석묘, 경주 갑산리 적석석관묘 등의 사례에서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지도1>.

상석을 통한 차별화도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거대한 규모의 상석이 다수 확인되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영남지역 전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지도2>. 포항 문성리 지석묘, 포항 인비리 지석묘, 경주 도계리 지석묘, 대구 천내리 지석묘, 언양 서부리 지석묘, 김해 구산동 지석묘 등이 상석의 규모를 통한 차별화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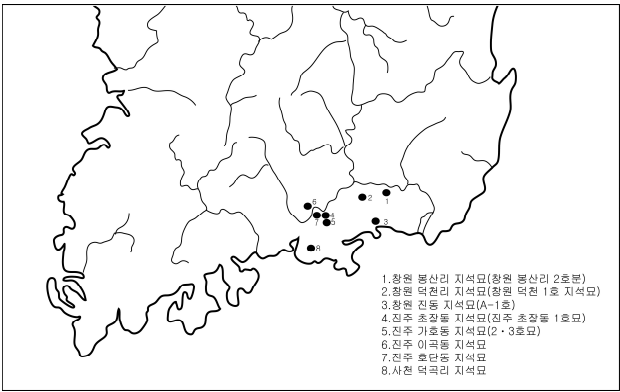
<지도2> 상석의 규모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가시성과 조망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고지성 입지와 상석의 규모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러한 양상은 <표2>에서 보듯 김해, 창원, 창녕, 달

51) 세종문화재연구원, 앞의 약보고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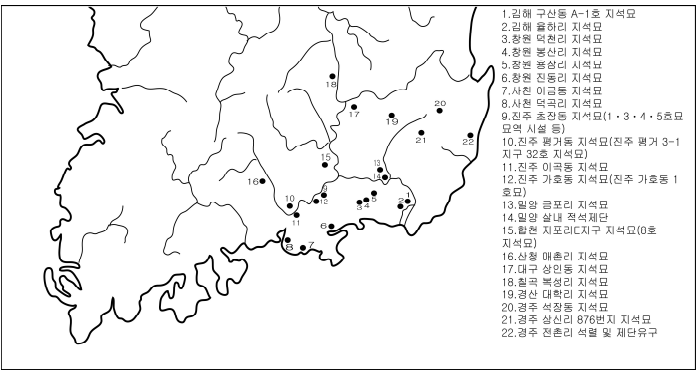
52)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92호분~94호분, 지석묘-』, 2016, 92~104쪽.

성, 칠곡, 경주, 포항 등 영남지역 전체에서 나타남으로 별도의 지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도3> 봉토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봉토를 활용하여 차별화하는 전략은 창원 덕천리 지석묘, 창원 봉산리 지석묘, 창원 진동 지석묘, 진주 초장동 지석묘, 진주 가호동 지석묘, 진주 호탄동 지석묘, 사천 덕곡리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어 대체로 청동기시대 후기 남강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 채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지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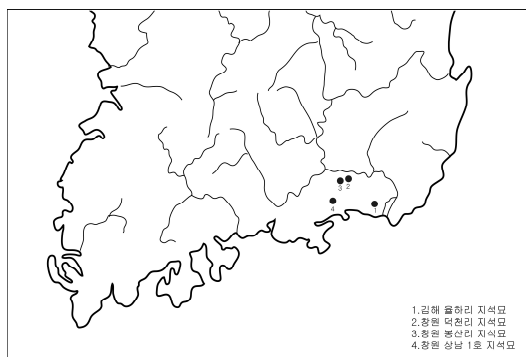
<지도4> 묘역의 규모로 차별화하는 지석묘 분포도

묘역의 규모를 크게 하여 차별화하는 권역은 김해 구산동 A-1호 지석묘, 김해 율하리 지석묘, 창원 덕천리 지석묘, 창원 진동 지석묘, 사천 이금동 지석묘, 진주 초장동 지석묘, 진주 가호동 지석묘, 밀양 살내유적, 산청 매촌리 지석묘, 대구 상인동 지석묘, 칠곡 복성리 지석묘, 경주 석장리 지석묘, 경주 상신리 지석묘, 경주 전촌리 석렬 및 제단유구, 포항 조사리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어 다단토광이나 봉토를 사용하는 남해안 권역이나 남강 권역보다 더 넓게 대구지역과 경주와 포항지역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지도4>.

다단토광과 다단개석을 통한 지석묘 하부구조를 크게 만드는 것을 전략적으로 채택하는 양상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특히 창원 봉산리 지석묘, 창원 덕천리 지석묘, 창원 상남1호 지석묘, 김해 율하리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어 주로 남해안 권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이다<지도5>. 김해 율하리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는 다단토광과 다단개석을 통한 지석묘의 하부구조를 크게 만드는 남해안 일부 지역의 현상은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문화의 深埋<sup>53)</sup>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 김해 율하리 B-9호 석관묘에서 한국식동검과 검파두석이 출토되어 지석묘와 석관묘의 재래집단이 새로운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석묘 축조집단의 목관묘 수용 현상도 그 일부일 수 있다. 그런데 지석묘는 탁자식지석묘를 포함하여 매장주체부가 지상식인 것도 있지만 다단토광과 다단개석을 한 매장주체부가 지하식인 지석묘 사례들도 있어서 지역에 따라 묘

53) 묘광을 깊이 파는 것은 원래 중국의 사후관에 기인하는 요소로서 중국의 전통적인 靈魂不死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사람이 죽으면 精魂과 體魄이 분리되어 정혼은 하늘 세계로 올라가 영원히 삶을 지속하는 조상신이 되어 강림하여 현세의 자손을 돌보고, 체백은 지상에 남게 되는데, 대지로 회귀하는 체백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떠도는 鬼魂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돌아가 쉬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무덤 입으로 주검은 귀혼에 의하여 교란되지 않도록 아주 깊이 묻는 深埋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중국의 목관묘나 석관묘가 아주 깊은 묘광의 바닥에 설치된 것이 때문이라고 한다(김용성,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54쪽).

광의 깊이가 동시기에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석묘 축조집단은 초기 목관묘문화의 영향으로 김해 율하리 지석묘와 창원 덕천리 지석묘의 사례에서 보듯 깊은 묘광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도5> 다단토광 및 다단계석으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대구 상동지석묘군에서 보이는 동일 묘역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석관 등의 매장주체부 장축 방향이 동서방향에서 남북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도 내세관 등에서의 의미체계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무덤을 토광계(석개토광, 토광, 화장용), 석관계(할석석관, 판석석관, 적석석관), 지석묘(위석형, 할석석관, 제단형), 주구묘(세장방형, 방형, 원형), 목관묘로 나누어 그 존속 시기를 밝힌 연구<sup>54)</sup>가 보여주듯 지석묘군 내에서의 축조방식의 시기별 · 지역별 다양성은 집단 내외적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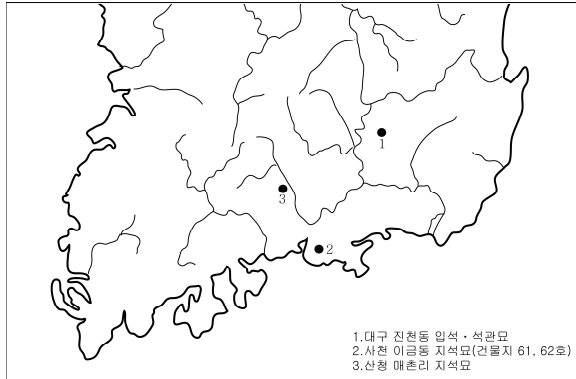
대구 진천동 입석, 산청 매촌리 지석묘군 중 매장주체부가 없는 의례유구(1호와 2호)와 소형입석<sup>55)</sup> 그리고 사천 이금동 지석묘의 의례기념물로 추정되는 60호와 61호 대형건물지<sup>56)</sup> 등의 사례는<지도6> 신전,

54) 이수홍, 앞의 논문(2020b), 220쪽.

55) 우리문화재연구원, 『산청 매촌리 유적』, 2011, 271~2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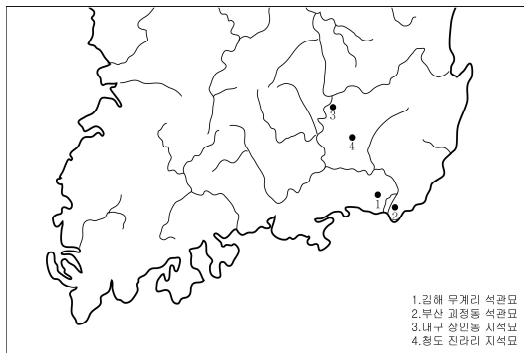
56) 경남고고학연구소, 앞의 책(2003), 128~136쪽 ; 조현정, 앞의 논문, 335~345쪽.

조상의 상징물 등이 포함된 이러한 의례기념물을 만들고 그 주변에 지석묘군이나 석관묘가 입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집단 내부적 · 외부적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며 주로 남해안지역, 남강유역, 대구지역 등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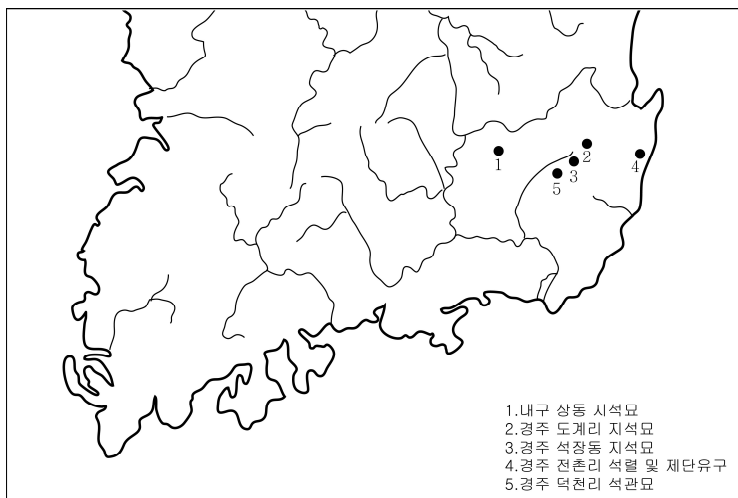
<지도6> 의례 기념물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의기화된 마제석검과 같이 부장품의 의기화를 통한 차별화는 김해 무계리 유적, 부산 괴정동 추정 석관묘, 대구 상인동 지석묘, 대구 대천동 지석묘(B군 11호 묘), 청도 진라리 지석묘 등지에서 확인된다<지도7>.



<지도7> 의기화된 석검 부장으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불을 사용하는 정화의례나 화장의 흔적은 대구 상동 1호 지석묘, 경주 도계리 지석묘, 경주 석장동 지석묘, 경주 전촌리 제단유구 등에서 확인되어 대구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양상이어서 남강유역이나 남해안지역과 차별화된다<지도8>.



<지도8> 불을 사용한 정화의례로 차별화하는 주요 지석묘 분포도

비파형동검은 영남지역에서 사천 이금동 지석묘, 창원 진동리 석관묘, 김해 신문리 석관묘, 남해 당항리 유적, 산청 매촌리 지석묘 등에서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에 여수반도에서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부장되는 양상이다.<sup>57)</sup> 동검의 부장을 통해 집단 내에서 서로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시도된 권역이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주

57)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 III 115호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이 매장주체부 외부 북벽 석 바깥쪽에 비스듬히 세워져 출토된 바 있으며 여수 월내동 상촌 지석묘 III 92호 지석묘와 116호 지석묘에서도 비파형동검의 파쇄부장 가능성이 추측된다(김권구, 「부장양상으로 본 마제석검과 비파형동검의 상징성 변화양상의 검토」,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 최몽룡 편저, 주류성, 2016, 267~268쪽). 이러한 양상은 비파형동검의 상징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로 남해안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지도9>. 그러나 묘역 안에 위치하면서 상석의 규모도 큰 창원 덕천리 1호묘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상석이 작고 입지도 묘역 밖인 창원 덕천리 16호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이 부장되는 양상은 단순히 위세품의 부장만으로 위계를 따지는 것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지도9> 동검 부장으로 차별화하는 권역

검의 부장방식에 있어서도 착장되는 경우, 일반적 부장되는 경우, 파쇄부장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이 발견된다. 또 청도 진라리 지석묘, 대구 상인동 지석묘, 부산 괴정동 추정 석관묘, 김해 무계리 추정 지석묘 하부구조 등에서 의기화된 석검이 부장되는 사례도 있어서 부장 유물의 의미와 상징성에도 변화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송국리단계인 청동기시대 후기단계의 마제석검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통하여 ‘죽음-조상-지석묘-마제석검-송배 혹은 존경’의 상징적 관계를 연결고리를 제시한 연구<sup>58)</sup>가 있었는데 실제 마제석검의 다양한 부장 양상과 파쇄 등은 그

러한 상징적 관계가 재해석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토층의 관찰을 통한 목관의 존재가 유추되거나 목관의 사용 흔적 등이 확인된 사례로는 진주 대평 옥방 1지구 10호 토광묘와 45호 토광묘 그리고 640호 목관묘, 함안 오곡리 5호 묘와 24호 토광묘 그리고 25호 토광묘, 사천 이금동 B-3-1호 묘, D-17호 묘, D-12호 묘, 사천 이금동 A-9호 송곡리형 석관묘, 김해 구산동 A2-1호 묘, 김해 율하리 C-4호 묘<sup>59)</sup> 진주 옥방 8지구 20호 석관, 진주 초장동 5호 묘 · 15호 묘 · 19호 묘, 진주 평거동 다-3호 묘<sup>60)</sup>, 창원 덕천리 유적의 7호와 11호 지석묘<sup>61)</sup> 등이 있어서<지도10> 지석묘 축조집단이 차별화 수단의 하나로 목관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목관의 사용을 통하여 차별화하는 권역은 주로 사천, 창원, 김해, 진주, 함안지역이어서 주로 남해안지역과 남강 유역에 집중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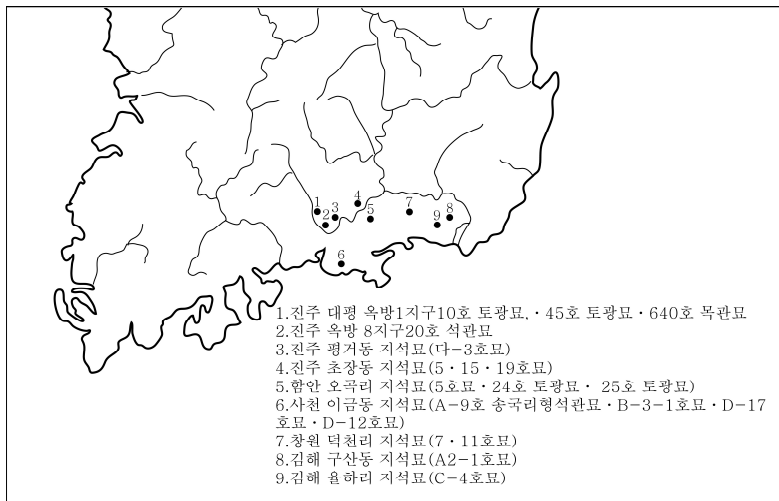
---

58) Bale, Martin. T. 「아날학과, 해석학적 고고학, 그리고 청동기시대 마제석검 연구」,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250쪽.

5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앞의 책(2009), 159쪽

60) 김소담,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과 의미」,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와 의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2회 전문가 학술회의 자료집),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022, 7~8쪽.

61) 경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2013), 111~120쪽.



<지도10> 목관의 수용(受容)이 추정되는 주요 지석묘의 사례

종합하면 남해안지역과 남강유역에서는 입지의 차별화, 상석과 묘역 규모를 크게 하는 양상, 지석묘 하부구조의 규모를 크게 하는 양상, 비파형동검의 부장, 목관의 사용 등 다양한 방식의 채택을 통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구, 경주, 포항지역의 경우에는 입지와 상석, 묘역의 규모를 크게 하는 방식, 의기화된 마제석검의 부장, 상석의 규모를 크게 하는 방식, 입석 등 기념물의 활용, 불(火)을 사용한 의례 등을 통한 집단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검단리식토기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영남지역 내 송국리식토기문화권에 비하여 지상기념물인 지석묘가 덜 축조되는 양상이어서 지석묘 상석과 규모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징과 의미가 부여되었음도 암시된다.

앞에서 정리된 <표2>와 앞에서의 다양한 분포도<지도1>, <지도2>, <지도3>, <지도4>, <지도5>, <지도6>, <지도7>, <지도8>, <지도9>, <지도10>은 시기별 · 지역별로 각각의 지석묘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석묘군 내부적으로 차별화하고 지석묘군 외부적으로도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군집성 여부나 큰 규모의 상석을 강조하면 서도 입지의 차이뿐만 아니라 매장주체부의 규모와 축조방식 그리고 부장 유물이나 불을 사용하는 의례 등으로 끊임없이 지식묘의 구조적 특성을 다양화하고 그와 더불어 의례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sup>62)</sup> 지식묘 축조집단은 석재 조달이나 인력 동원 그리고 축조 기술 등 다양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상징과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집단과 개인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2. 지식묘 축조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지역성의 의미 검토

### 1) 지식묘 축조의 정치·사회·경제적 맥락

지식묘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벼농사 등 농경이 본격화되는 송국리단계에 다양하게 축조되는 양상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합천 저포리 8호 지식묘와 칠곡 심천리 석관묘의 사례와 같이 이단 병식석검이 나오거나 무경식석촉이 나오는 양상이어서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지식묘 구조의 다양성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송국리토기문화단계인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취락에서의 기능분화와 위계가 출현하여 심화된다.<sup>63)</sup> 또 벼농사 등 농경의 본격화에 따른 집단

62) 지식묘군 내에서의 지식묘 규모, 입지, 분포방식, 축조방식, 부장품의 종류와 양, 장법 등에서의 차이는 집단 내에서의 내부적 차별화이고 서로 다른 지식묘군별 규모, 입지, 분포방식, 축조방식, 부장품의 종류와 양, 장법의 차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외부와의 외부적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화 방식은 내부적 차별화와 외부적 차별화가 서로 융합되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63) 송만영,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2007, 25~59쪽; 배덕환, 「제1장 중심취락과 주변취락」,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김권구·공민규 편, 서경문화사, 2014, 221~240쪽; 이형원, 「제2장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영역의 배타적 점유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지상기념물로서 지석묘가 축조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기별 · 지역별로 다양한 구조를 보여주는 지석묘<sup>64)</sup>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논과 밭 그리고 수로와 보(洑)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비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집단영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저장물의 분배와 보호, 경작지와 물의 관리 등과 관련된 갈등의 잠재와 표출 가능성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력자의 등장과 사회분화<sup>65)</sup>와 관련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더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환호취락의 존재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암시하는 증거로 보인다.

### 3. 지석묘의 구조적 다양성이 갖는 의미-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수단

지석묘의 상석, 묘역, 매장주체부의 규모, 지석묘의 유형, 부장 유물의 종류와 양, 장법 등 지석묘의 구성요소와 장법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어 동태적으로 변동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석묘가 지석묘군 내부적으로 차별화되며 축조되고 지석묘군 사이에서 외부적으로 차별화되며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6)</sup> 이러

---

김권구 · 공민규 편, 서경문화사, 2014, 241~270쪽.

64) 이러한 점에서 무덤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인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경험되는, 산 사람들을 위한 것(김종일, 앞의 논문, 10~11쪽)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5) 이청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2007, 11~23쪽; 김승옥,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 2007, 61~139쪽.

66) 지석묘의 의례적 기능으로 제단적 기능, 묘표석의 기능, 농경사회의 기념물, 교통로의 표지적 기능, 취락의 경계 기능, 가매장시설의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윤호필 201

한 차별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식묘 축조사회가 당면한 농경의 본격화라는 사회경제적 맥락<sup>67)</sup>과 당시 사회문화 과정<sup>68)</sup>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sup>69)</sup> 벼농사를 포함한 농경을 본격화 과정에서 집단 경작 공간의 배타적 점유 필요성이 커지고 그러한 경제적 토대 속에 일어난 유력자의 등장과 유력자의 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지식묘의 상석, 다중개석, 매장주체부, 규모, 입지, 묘역, 부장품의 양과 질, 정화의례 등의 차별화 수단을 조합하며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적 · 경제적 조건과 문화 전통은 지역마다 다르고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발생 기간도 시기별 ·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청동기시대 후기로 오면서 갈등이 일어날 개

7:146-150)은 지식묘의 의례와 상징성의 중층양상을 암시한다.

67) 김범철,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수도 생산의 정치경제-금강 중 · 하 유역 송국리형 취락체계의 위계성과 도작집약화-」,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2006, 40~65쪽 ; \_\_\_\_\_, 『쌀의 고고학-한국 청동기시대 수도작과 정치경제-』, 민속원, 2011, 202~261쪽.

68) 청동기시대 전 · 중기의 전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제시된 사회경제적 변화를 ①취락분포유형에서 관찰되는 정치체의 형성과 구성공동체 간 규모와 기능적 분화, ② 환호 목적 등 방어시설의 확충에서 보이는 취락 간 갈등 또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 강화, ③주거 분포패턴에서 인지되는 공동체 내 가구 양태의 변화와 가구 간 신분 및 빈부 차의 심화, ④ 분묘에서 보이는 공동체 내외의 계층분화 및 수장(총)의 등장, ⑤ 수전을 이용한 집약적 미곡생산의 본격화, ⑥ 집단적 저장체계의 강화, ⑦ 공동체 내외의 분업화 또는 (위세품의) 수공전문화, ⑧ 지식묘 분포양상에서 보이는 거석기념물 축조의 급속한 확산, ⑨ 취락 내 (추정) 의례건물지나 의례광장에서 보이는 (집단)의례의 내촌화(內村化) 및 빈도 증가의 9가지를 들고 있다. 김범철의 청동기시대 중기인 필자의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송국리문화단계에 적어도 남강권역과 남해안권역(낙동강하류역)에서는 김범철이 지정한 9가지 기준 중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의 강도가 상급인 것이 각각 4개로 파악되었으나 ①취락분포유형에서 관찰되는 정치체의 형성과 구성공동체 간 규모와 기능적 분화 기준 하나만 상급으로 공통되고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게 상급과 중급으로 분류된 바 있어서(김범철, 「청동기시대 전 · 중기 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 『한국청동기학보』 제27호, 한국청동기학회, 2020, 11~13쪽) 이 또한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도 소지역별로 다르게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도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69) 김승욱, 앞의 논문(2007), 61~139쪽 ; 이영문, 앞의 논문(2017), 157~178쪽.

연성은 더 증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석묘 구조와 부장 의례 등에서 보이는 다양성은 지석묘 축조집단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당시 사회에 존재하던 갈등과 출현한 유력자의 권력이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는 산물로서<sup>70)</sup> 그 분쟁을 완화시키며 통합하고자 했던 청동기시대 후기 사람들의 의지를 담은 산물(産物)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석묘 축조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과 그와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엘리트 집단을 포함한 비엘리트 집단 사이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경쟁과 관련하여 지석묘의 구조적 특성과 의례가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어 타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 지역별 지석묘의 구조적 다양성과 지석묘의 특정 구조의 축조에 과도한 에너지 소비행위(conspicuous consumption)를 한 것도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하고 유력자가 출현하였지만 권력의 승계는 불안정한 역동적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과 그에 관련된 의례는 이데올로기를 체험하고 공유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때 이를 은폐하거나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sup>71)</sup>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대 후기는 전기에 비하여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이 지역별로 증대되는 양상이어서 영남지역 전반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집단영역의 배타적 점유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사회적 갈등이나 경쟁이 고조된 양상의 존재를 암시한다.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 김해, 창원, 진주 등 남해안지역 혹은 남강유역에서 발견되는 다단토광과 다단개석의 하부구조,

70) 김권구,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화 양상의 불안정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89~138쪽.

71) 주지하듯이 이데올로기는 상징체계의 한 측면으로서 불평등이 정의되고 권력이 정당화되는 틀로서 그에 대한 관념들은 권력에 대한 협상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현실적인 물질적 자원이며 그 자체로 이념적 도구의 일부라고 인식된다(Hodder I. and Hutson S. Reading the Past -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8쪽).

규모가 커진 묘역과 봉토의 출현, 의기화된 마제석검 등의 부장을 포함한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과 의례의 차별화는 영남의 다른 지역보다 남해안지역과 남강유역에서 당시 사회적 갈등<sup>72)</sup>이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 청동기시대 후기는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집단이 유입되고 농경의 본격화에 따른 집단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의 필요성이 커지던 시기이고 또 유력자의 성격이 족장에서 군장으로 변화되던 시기여서<sup>73)</sup> 집단 유력자의 등장 및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점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후변동에 따른 주민 이동, 주민 유입과 그로 인한 특정 지역의 인구밀도 증대, 질병의 유행 가능성, 신앙체계의 점진적 변화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점토대토기 문화집단과의 문화접변 속에 신문화 수용집단과 지석묘 전통 유지집단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체계 불안정 요인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요소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사한 강도의 사회적 갈등이라도 집단마다 대응하는 전략과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 단계에 남강 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 지석묘 구조 다양성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구와 경주지역 등에서는 다단토광과 다단개석 그리고 봉토의 사용과 같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대규모 상석을 통한 차별화와 불을 사용하는 의례의 활용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대구와 경주지역에서는 지석묘 축조집단이 그들이 당면한 사회적 갈등과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데 남강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의 지석묘 축조집단과는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지석묘의 지역성과 구조적 다양성은 지석묘가 농경사회의

72) 물론 화재주거지의 주거지별 잔존양상을 통한 방화와 실화 여부의 검토, 화재주거지의 취락 내 비율, 취락 내 화재주거지의 분포양상, 진주 대평리 옥방유적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 환호취락의 등장과 전체적인 취락의 단절적 폐기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향후 화재주거지 문제, 환호와 고지성 입지의 취락 문제, 기후변동 문제, 인구문제 등이 관련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더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73) 이성주, 앞의 논문(2012), 74~109쪽 ; 이수홍, 앞의 논문(2020a), 51쪽.

기념물<sup>74)</sup>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상징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적어도 지석묘는 농경사회의 기념물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상징물이라는 중층적 상징성이 융합된 청동기시대 기념물이라고 생각된다.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와 방식으로 지석묘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V. 맺는말

이 논문에서는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지석묘의 구조, 입지, 규모, 부장품 등에서 차별화된 결합양상의 지역성과 시기성을 밝히고 그를 토대로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과 그 사회적 의미가 추적되었다.

그 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영남지역의 지석묘에서 묘역과 큰 상석 강조하거나 마제석검 등 부장품을 강조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후기에 비하여 그 양상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반면 논농사와 밭농사 등을 통한 농경의 본격화와 집약화 그리고 취락의 위계화, 사회분화와 유력자의 성격 변화가 진행되던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상석, 묘역, 부장 유물, 가시성과 조망성 등을 통한 차별화뿐만 아니라 봉토의 축조, 다단토광 및 다단개석을 통한 지석묘 매장주체부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경향, 부장 유물의 의기화, 제의 기념물과의 근접성, 목관 채택, 불을 통한 정화의례, 지석묘 분포방식 등을 통한 차별화도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특히 남강유역과 남해안권역은 상석과 묘역의 규모를 크게 하는 양상과 봉토의 채용, 부장 유물의 종류와 양, 부장 유물의 의기화, 가시성과 조망성, 제의기념물과의 거리, 목관 채택, 단독과 군집분포양상을 통한 차별화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지

74) 이성주, 「마. 지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 박물관, 1999, 423~441쪽.

역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대구, 경주, 포항지역에서는 규모가 큰 묘역의 축조, 상석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경향, 부장 유물의 종류와 수량, 불을 통한 정화의례, 단독분포와 군집분포 등을 활용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또 대구지역에서는 울산, 경주, 포항지역과 공유된 차별화 양상 이외에도 의기화된 석검부장과 제의 기념물과의 근접성과 같은 차별화 수단이 추가된다.

지석묘 축조집단은 집단영역의 배타적 점유와 안전, 풍요,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석묘의 입지와 상석의 규모 강조방식, 묘역 규모를 크게 하는 방식, 불을 사용한 차별화된 의례 방식 등을 채택하여 집단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 외부적으로도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후기 송국리단계 지역별 지석묘 구조의 다양성은 사회분화의 진행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유력자의 존재가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그 불평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와 사회적 갈등의 고조를 역동적으로 암시하는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적 다양성을 가진 지석묘는 농경사회의 기념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상징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논문

- 강동석, 「보성강·탐진강 유역 지식묘사회의 변동 양상-지식묘의 분포, 구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29호, 한국청동기학회, 2021, 130~163쪽.
- ,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관-진주 대평리·평거동·초장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32호, 한국청동기학회, 2023, 34~66쪽.
- 김광명, 「낙동강 중·상 유역 지식묘의 특징」, 『대구·경북의 지식묘 문화』(영남문화재연구 3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51~79쪽.
- 김권구,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의 변천-수장의 출현과 불평등 제도와 양상의 불안정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89~138쪽.
- ,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왜기양상에 대한 고찰」,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118~143쪽.
- , 「부장양상으로 본 마제석검과 비파형동검의 상징성 변화양상의 검토」,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 최몽룡 편저, 주류성, 2016, 223~278쪽.
- ,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에 대한 고찰」, 『福岡大學考古學論集3-武末純一先生退職記念-』, 武末純一先生退職記念事業會, 2020, 193~207쪽.
- 김범철,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수도 생산의 정치경제-금강 중·하 유역 송국리형 취락체계의 위계성과 도작집약화-」, 『한국고고학보』 58, 한국고고학회, 2006, 40~65쪽.
- , 「청동기시대 전·중기 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 『한국청동기학보』 제27호, 한국청동기학회, 2020, 4~19쪽.
- 김소담,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과 의미」,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와 의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2회 전문가 학술회의 자료집), 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2022, 1~29쪽.

- 김승옥, 「묘역식(용담식) 지석묘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제 53호, 한국상고사학회, 2006, 71~93쪽.
- , 「분묘 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 2007, 61~139쪽.
- 김재현,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화장묘 출토 인골분석」,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198~203쪽.
- 김종일, 「몸, 기억 그리고 정체성: 분묘고고학의 새로운 전망」, 『분묘군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2024, 1~36쪽.
- 김춘영, 「지석묘 분포를 통해 본 남해안 각 지역의 교통로」,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174~195쪽.
- 박양진,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충남대학교박물관 학술회의의 자료집),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189~204쪽.
- , 「한국 지석묘사회 “족장사회론”의 비판적 검토」, 『호서고고학』 제14 집, 호서고고학회, 2006, 5~24쪽.
- 배덕환, 「제1장 중심취락과 주변취락」,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김권구 · 공민규 편, 서경문화사, 2014, 221~240쪽.
- 배진성, 「지석묘의 기원 연구를 바라보는 일시각-기원론에서 형성론으로-」,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33~45쪽.
- 소배경, 「김해 구산동유적 무문시대 집락과 기단묘-최신 발굴조사성과를 중심으로-」, 『가락국, 청동기에서 철기로』(제28회 가야사학술회의),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3, 1~22쪽.
- 송만영,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사회평론, 2007, 25~59쪽.
- 안재호, 「묘역식지석묘의 출현과 사회상-한반도 남부의 청동기시대 생계와 묘제의 지역상」, 『호서고고학』 제26집, 호서고고학회, 2012, 38~73쪽.
- 우명하, 「영남지역 묘역지석묘 축조사회의 전개」, 『영남고고학』 제75호, 영남고고학회, 2016, 5~36쪽.

- 우정연, 「남한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의 가분성(dividuality)」, 『한국학』 17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7~45쪽.
- 유병록, 「한국 청동기시대 분구묘의 설정과 의미」, 『한국청동기학보』 34호, 한국청동기학회, 2024, 4~25쪽.
- 윤형규, 『대구·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과 사회변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윤호필, 「청동기시대 묘역지식묘에 관한 연구-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창간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a, 1~20쪽.
- \_\_\_\_\_, 「청동기시대 무덤 및 매장주체부 재검토:김해 율하리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제5호, 한국청동기학회, 2009b, 36~58쪽.
- \_\_\_\_\_, 『축조와 의례로 본 지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제2장 지식묘의 장송의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분묘와 의례』, 이영문·윤호필 편, 서경문화사, 2017, 128~153쪽.
- 이동희, 「제단식 지식묘로 본 김해 구산동 지식묘」, 『호남고고학보』 제72집, 호남고고학회, 2022, 228~267쪽.
- 이상길,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0.
- 이성주, 「마. 지식묘: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423~441쪽.
- \_\_\_\_\_, 「의례, 기념물, 그리고 개인묘의 발전」, 『호서고고학』26, 호서고고학회, 2012, 74~109쪽.
- \_\_\_\_\_, 「지식묘의 축조중단과 초기철기시대」, 『대구·경북의 지식묘 문화』 (영남문화재연구3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127~162쪽.
- \_\_\_\_\_, 「기억, 경관, 그리고 기념물 축조」, 『문헌 표상, 드러나는 가치 구산동 고인돌』, (김해 구산동 지식묘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경남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19, 55~74쪽.
- 이수홍, 「영남지역 지식묘 문화의 변화와 사회상」, 『한국상고사학보』 제110호, 한국상고사학회, 2020a, 31~59쪽.

- \_\_\_\_\_, 「경주지역 지식묘 문화의 특징과 종말기의 양상」, 『문화재』 제53집 NO.4,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b, 216~233쪽.
- \_\_\_\_\_, 「영남지역 묘역식지석묘의 특징과 구산동지석묘의 성격」, 『고고광장』 제32호, 부산고고학회, 2023, 1~27쪽.
- \_\_\_\_\_, 「선사시대 군집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분묘군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 제33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2024, 37~55쪽.
- 이영문, 『전남지방 지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제1장 분묘와 사회」,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4-분묘와 의례』, 이영문 · 윤호필 편, 서경문화사, 2017, 157~178쪽.
- 이은경,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구획묘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청규,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회편, 사회평론, 2007, 11~23쪽.
- 이형원,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분묘공간 조성의 다양성」,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학연문화사, 2012, 47~87쪽.
- \_\_\_\_\_, 「제2장 취락과 사회구조」,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김권구 · 공민규 편, 서경문화사, 2014, 241~270쪽.
- 조현정, 「2. 이금동유적의 지상식건물에 관해서」,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335~345쪽.
- 최몽룡, 「다. 전남지방소재 지식묘의 형식과 분류」, 『한국 지식묘(고인돌) 유적 종합조사 · 연구-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 ·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371~406쪽.
- 최종규, 「1. 용잠리의 파괴된 무덤을 이해하기 위한 추상」, 『창원 용잠리 송국리문화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12, 307~344쪽.
- Bale, Martin. T. 「아날학과, 해석학적 고고학, 그리고 청동기시대 마제석검 연구」, 『우행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이상길 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진인진, 2015, 236~257.

## 2. 단행본

- 강봉원, 『한국 지석묘 연구-정치·사회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학연문화사, 2022.
- 김범철, 『쌀의 고고학-한국 청동기시대 수도작과 정치경제-』, 민속원, 2011.
- 김용성, 『신라 고분고고학의 탐색』, 진인진, 2015.
- 김재원 · 윤무병, 『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박물관, 1967.
- 이동희, 『한국 지석묘문화와 복합사회의 형성』, 학연문화사, 2023.
- 이성주 · 신영애 · 방선지 · 조미애 · 정은정 · 김광명, 『경북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학연문화사, 2016.
- Choi, Mong-lyong, *A Study of the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The Rise of Chieftdom Society and State in Ancient Korea*, Dong SeongSa, Seoul, 1984.
- Hodder I. and Hutson S. *Reading the Past -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平郡達哉,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2013.

## 3. 발굴보고서

- 경남고고학연구소, 『사천 이금동 유적』, 2003.
- 경남대학교박물관, 『덕천리』, 2013.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김해 율하리유적 II-본문 · 도면-』, 2009.
- \_\_\_\_\_, 『마산 진동유적 I』, 2008.
- \_\_\_\_\_, 『사천 덕곡리유적』, 2010.
- \_\_\_\_\_, 『마산 진동유적 II』, 2011.
- \_\_\_\_\_, 『밀양 살내유적 II』, 2015.
- 경북대학교박물관, 『진천동 · 월성동 선사유적』, 2000.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목록표 외(본문)-』, 2004.
- \_\_\_\_\_, 『경주 갑산리 유적』, 2006.
- \_\_\_\_\_, 『경주 전촌리 유적』, 2015.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석장동 876-5번지 유적』, 『경주지역 소규모 발굴 조사 보고서 II』, 2012, 151~221쪽.
- 국립경주박물관, 『월성군 · 영일군지표조사보고』,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 17책, 국립중앙박물관, 1985, 103~157쪽.

-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상동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
-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청동기시대편①-증보판(국내편)』, 2022.
- 국립밀양대학교박물관 · 경남고고학연구소, 『밀양 가인리유적』, 2002.
- 덕은문화재연구원, 「경주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부분완료(2차) 약식보고서」, 2023.
- 대경문화재연구원, 「경산 하대~옥천간 도로(대로1-남산1) 개설공사부지내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92호분~94호분, 지석묘-』, 2016.
- 동북아문화재연구원, 『경산 대학리 · 교리 유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본문 · 도면-』, 2019.
- 동서문물연구원, 『진주 가호동유적(하)』, 2011.
- \_\_\_\_\_, 『진주 초장동유적III』, 2017.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원 화양리 1호 지석묘』, 2021.
- 부산대학교박물관, 『합천 저포리E지구유적』, 1987.
- 삼강문화재연구원, 『남해 당항리유적』, 2021.
- \_\_\_\_\_, 『김해 구산동 지석묘』, 2023.
- 삼한문화재연구원, 『영천 반정리 부흥 · 영천 팔암 · 경주 도계리 지석묘군 II 외 16개소 유적 I (본문)』, 2020.
- \_\_\_\_\_,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1, 2공구)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3.
- 세종문화재연구원, 「대구 화원 설화리(556-2번지 일원) 주거환경 개선 및 소공원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2.
- 영남문화재연구원, 『대구 대천동 511-2번지유적 I』, 2009a.
- \_\_\_\_\_, 『대구 대천동 511-2번지유적 II』, 2009b.
- 우리문화재연구원, 『산청 매촌리 유적』, 2011.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김해 신문리 유적-본문-』, 2015.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구 신서동 유적 I』, 2012.

Abstract

## Diversity in dolmen structures and its social meanings\*

Kim, Gwon-gu\*\*

This thesis aims to trace the social meanings of the structural diversity of dolmens in the Youngnam Region during the Bronze Age. To do so the various strategic candidate tools, which the Bronze Age people could adopt, has been analyzed along with the regional features of dolmen structures over time in socio-economic contexts.

The Early Bronze Age witnessed the emergence of the dolmens. During the Early Bronze Age diverse differentiation in dolmen structure and other strategic tools had been expressed less obviously than in the Late Bronze Age. However the Late Bronze Age witnessed diverse creative combinations of available tools for internal and external differentiation. So the diverse differentiating tools such as extraordinarily big capstones, wide and long dolmen premise, strategic location such as hilltop, deep stone cist with several layers of stone plates and pebbles, complex ceremonies including purification rituals, relatively conspicuous consumption of mortuary goods, and so on, had been creatively adopted on purpose, which might result in diversity of dolmen structures.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 University in 2022(Project No. 20220683).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eimyung University/email:ggkindream@kmu.ac.kr

The structural diversity in dolmen during the Late Bronze Age might be a vivid evidence to imply not only the emergence of social inequality and that of elites along with social differentiation but also ‘the unstable un-institutionalized inequality’ with increasing social conflicts. So the diversity in dolmen structures is thought to be a symbol of social conflicts and integration.

**keywords :**

the Bronze Age, Younghan Region, structural diversity in dolmen, internal and external differentiation, symbol of social conflicts and integration